

동료, 병원장님 및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드유니온 의료관광회사의 대표이사 안나 콘드라티에바입니다.

환영합니다!

메드유니온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관광을 대표 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 활동은 러시아 환자를 한국 병원으로 보내는 의료 관광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단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주된 업무 외에도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회사는 한국의 대도시 의료기관 투어, 한국 의료 관광 국제 회의, 러시아 주요 도시의 의료 관광 전시회에 참여하며 또한 블라디보스톡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상담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국 병원을 더 잘 알고 또한 그 직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치료를 위해 환자를 보낼 때마다 치료의 성공과 효과는 물론 최고 수준의 서비스에 대해 100 % 확신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Hello, Daegu'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구시의 다양한 진료분야의 7 개 의료기관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이 의료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주요 의료기관 전문의사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의 전문의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의견을 얻었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아태 지역 '메디 시티 대구 국제 컨퍼런스'와 'APAAC 2019 안티 에이징' 강의를 참석하여 러시아-대구 의료기관 공식 대표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였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한국 의사의 진료컨설팅을 받기 위해 서신과 온라인 치료 상담을 계획하였

고, 필요한 약을 구입하여 환자에게 보내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주요 의사들과 라이브 대화를 나누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관광공사 대표자들과 온라인 회의에 참여했으며, 이번 가을에만 5개의 의료 관광 온라인 컨퍼런스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 시 검역 준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이전의 비자 면제 입국이 일시적 중단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 진료를 위해 반드시 2주 격리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의심 할 여지없이 환자들에게 한국 병원 방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병원 컨설팅을 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 의료비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 핵심은 "함께 하면 더 강하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와 양국 간의 우정을 믿으며 곧 모든 것이 평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전처럼 일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1)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자가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자는 이전에 환자가 한국병원에서 악성종양으로 진료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사관에서 발급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와 악성 종양이 아닌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뇌신경성 진행성 질환, 근 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등). 또한 이전에 한국에서 치료 후 추적 관찰 중인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과 관련된 자료가 한국에 있어 러시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2) 서류 심사에 14일 소요되므로 환자 치료 없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 3)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간 직항이 중단되어 모스크바를 통해서만 한국 입국이 가능하기에 환자는 길고 어려운 비행 일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 4) 또한, 한국에 도착하면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고 한국 비자 신청 후 최소 14일이 필요하므로 환자는 필요

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약 한 달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의 공통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이전시와 의료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 우리 환자들과 우리는 영사관이 의료 비자 취득을 매우 자주 거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영사관에 보장할 수 있는 3자 간 MOU를 체결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MOU에서 환자와 에이전시 및 한국병원의 책임을 정의 할 수 있을것입니다. 환자를 의뢰하는 각 기관은 (에이전시와 병원) 환자의 병력을 알고 진단을 확인한 다음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의뢰되었음을 대사관에 확인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2. 응급치료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 신속한 특별입국절차 (green corridor)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사관 공동 서한을 개발하여 14일 이전에 비자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더 일찍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제안이며, 이 일은 병원이나 에이전시의 역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이며, 이 환자들의 완치 및 생명 연장의 유일한 통로가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이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